

극단 하모하모

극단 하모하모는
2019년 8월에 창단하여
즐거운 연극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단원들은 모두 아마추어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남해군에 산재되어있는
설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직접 스토리텔링해서
연극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연혁

2019. 08. 창단
2019. 12. <1회 정기공연 호랑이가 된 효자>
2021. 12. <2회 정기공연 호랑이가 된 효자 1>
2022. 12. <3회 정기공연 호랑이가 된 효자 2>
2023. 11. <4회 정기공연 소원이 있으면 이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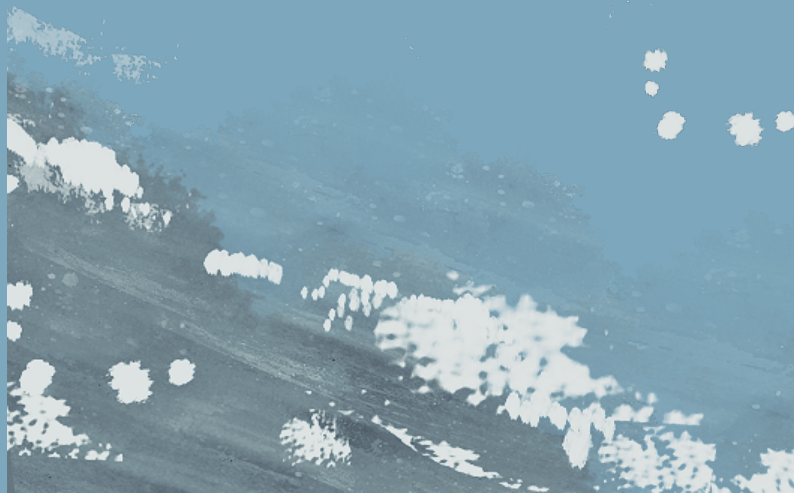


극단 하모하모 정기공연

이곳으로 소원이 있으면

2023. 11. 26(일) 15:00 남해탈공연박물관 다초 실험극장
출연 하숙의 강행주 김미정 박덕실 박우리 박인숙 박현애 이삼순 이우실 이의영 이현숙 정현진

극
본
작
가
김
정
민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극단 하모하모는 타 극단과 달리
남해군에 산재되어있는 설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해서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하모하모는 2019년 창단하여 이번이 4회 정기공연이며,
아마추어 직장인들로 구성되어있는 우리 단원들이
직접 집필한 대본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한 공연입니다.

잠시 뒤에 공연 될 작품은 정영란 단원의 작으로
가천 암수바위를 스토리텔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연극은 남해군 지방보조사업 지원금으로 만들었으며,
잊혀져 가는 우리고장의 설화나 전설을 알리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아마추어로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보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놉시스

1.

남해 가천에 사는 지극한 효자 '미륵'
그는 여느날과 같이 아침 일찍 바다에 나가 많은 생선을 잡아왔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맞춰 이웃 무지개마을에 가서
곡식과 생선을 바꾼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천둥번개와 소나기.
산 중턱에서 비를 피하던 중 길을 잃은 선녀와 마주치게 되는데...

2.

창녕 조대감집 아들 '광진'.
그는 아무리 준비해도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급제의 길에 서있다.
한양으로 향하던 중 목어갈 곳을 찾아 한 주막에 들어가는 '광진'.
그곳에서 주막집 딸 '귀순'을 보게되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과거는 뒤로하고 귀순에게 푹 빠져버린 '광진'은 꾀병을 부려
끝내 주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는 고향 창녕으로 돌아온다.
과거는 커녕 주막집 딸과 함께온 '광진'에게는 부모님의 냉랭한 반응뿐.
정당한 사랑임을 증명하고자 다시 과거시험을 준비하여 한양으로 떠난다.
그 사이 조대감 부부는 '귀순' 때문에 큰 화가 닥칠것이라는 점괘를 듣는데...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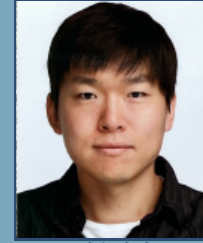
미륵
정 현 진



미륵 모
강 행 주



선녀
박 현 애



여수아재
박 우 리



동네 여인
하 숙 희



광진
이 우 신



귀순
이 현 숙



주모
이 삼 순



광진 부
김 미 경



광진 모
박 인 숙



무당
박 덕 실



이방
이 의 영



작
정 영 란



연출
김 민 희

이곳으로
소원이있으면